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홍 창 희[†]

국립나주병원

본 연구는 평소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는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정서척도를 평가하여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우리말 정서 단어로서 적절성과 정서경험빈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문항들을 선정한 후 대학생 230명에게 실시한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22문항의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였다. 요인분석결과 2요인이 추출되었고, 각각 정적정서, 부적정서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대학생 258명과 일반인 105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고, 두 집단 모두에서 정적 및 부적정서의 안정된 2요인구조가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해 두 가지 대안적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단일모형보다는 독립된 2요인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 또한 정서경험척도는 우울과 불안 및 일반건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경험, 정적 정서, 부적 정서, 확인적 요인분석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 창 희 / 국립나주병원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FAX : 061-330-4150 / E-mail : wana1020@hanmail.net

우리의 삶은 지(知)·정(情)·의(意)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는 인지 및 동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Tomkins(1981)가 정서 자체의 독립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래, 정서와 인지와의 관계에 대한 Zajonc(1984)와 Lazarus(1984)의 논쟁과 더불어 지난 20여년 동안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Frijda, 1988).

이후 정서경험의 차원이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강혜자와 한덕웅, 1994;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1994; 이만영과 이홍철, 1990; 홍창희와 오수성, 2000; Larsen & Diener, 1992; Parkinson, Totterdell, Briner, & Reynolds, 1996; Russell, 1980; Smith & Ellsworth, 1985; Watson & Tellegen, 1985). 연구결과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experienced emotion)는 생리적 반응, 얼굴표정이나 자세 등의 행동반응, 그리고 주관적인 반응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보고 있다(Parkinson, 1995). 이 중 주관적인 반응의 형태로 드러나는 정서경험을 다루는 연구들은 다양한 정서들간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거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토대로 정서들을 범주로 구분하였다(Averill, 1975; Bush, 1972; Russell, 1980; Smith et al., 1985). Averill(1975)은 정서단어의 의미미분척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평가(evaluation), 활성화(activation), 개인적 통제(control) 및 정서경험의 깊이(depth)차원을 보고하였다. Bush(1972)는 성격 및 정서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정서단어를 수집해 다차원 분석결과 쾌-불쾌, 활성화 및 공격성 수준의 세 차원을 보고하였다. 이후 자기보고 설문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차원은 쾌정서와 각성정서차원(Russell, 1980),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차원(Watson et al., 1985)에 의해 나누어지고, 이들간 조합에 의해 원형적인 배열

(circumplex arrangement)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Larsen et al., 1992; Parkinson et al., 1996). 많은 연구자들은 정서경험의 구조를 원형으로서 잘 나타낼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정서의 원형 구조 도식은 느끼는 쾌-불쾌의 정도와 각성수준(valence/level of arousal)의 두 양극차원으로 정의된다(Russell, 1980). 쾌-불쾌의 정도는 만족감, 행복감 등 경험하는 즐거운 특징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고, 각성수준은 생리적 활성화 수준보다는 주로 각성의 지각을 말한다(Russell, Lewicka, & Niit, 1989).

원형구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정적 정서/부적정서 모델(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model)이다(Watson, Clark, & Tellegen, 1988; Watson et al., 1985; Zevon & Tellegen, 1982). Watson 등(1988)에 따르면, 정적 정서는 환경과 유쾌한 관여의 단극성 차원으로 개인이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민활함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높은 정적 정서는 힘차고 몰입할 수 있으며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고, 낮은 정적 정서는 슬픔과 무력감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적 정서는 주관적 고통의 단극성 차원으로, 분노감, 경멸, 혐오, 죄책감, 공포감 등을 반영한다. 높은 부적 정서는 주관적인 괴로움이 높음을 의미하고, 낮은 부적 정서는 차분함이나 평온함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은 국어사전에서 추출한 정서단어의 유사성평정과 다차원분석 결과, 쾌-불쾌 차원이 나타나고 각성수준 차원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안신호 등, 1993, 1994). 이만영 등(1990)은 대학생집단의 자유반응을 통한 정서용어를 수집하여 군집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쾌, 내부지향 불쾌, 외부지향 불쾌, 수동적 정서, 흥분/침잠 및 안도감의 차원을 보고하였다. 강혜자 등(1994)은 사전에서 추출한 대표적 정서

용어의 다차원분석 결과 쾌-불쾌, 각성, 긴장이 완의 세 차원을 밝혀냈다. 이주일(1998)은 기존의 도출된 정서단어들과 우리말 대표정서단어를 통합한 정서단어목록을 통해 정적 차원인 유쾌, 열정, 평은 정서와 부적 정서인 불쾌, 피로, 각성(부적 각성)의 6가지 정서를 보고하였다. 홍창희 등(2000)은 이은영(1991)과 이주일(1998)의 정서단어 목록 중 의미가 일치하는 단어를 선정하고 각 차원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단어 16개를 선택해 다차원분석결과, 쾌차원 및 각성차원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정서단어의 수집과정, 평가대상 및 분석방법에 따라 정서차원분류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서단어들간 유사성에 의한 자기보고의 연구결과에서 두 가지 정서분류 방식이 보편적으로 도출되는 차원으로 여겨진다. 즉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차원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그리고 쾌-불쾌 및 각성차원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 중 정적/부적 정서차원은 정서적 특질(emotional trait)을 측정하는 반면, 쾌/각성정서 분류차원은 정서상태(emotional state)를 측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이주일, 1998, Gross, John, & Richards, 2000; Watson et al., 1988). 정서적 특질을 측정하는 정적 및 부적 정서차원은 외향성, 불안 및 신경증 등의 성격특질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llegen, 1985; Watson et al., 1984). 이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차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기보고형 척도 중의 하나가 정적 및 부적정서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et al., 1988)이다. 개발 당시 이래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PANAS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다(Kvval & Par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한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정서관련척도들은 외국에

서 개발되고 이를 번안해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PANAS의 경우도 이유정(1994)이 처음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속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척도의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1에서는 정서관련연구나 임상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PANA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2에서는 연구1의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 기존 정서경험척도의 평가

개인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정서는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며, 문화에 따라 정서분류체계가 달라진다는 정서경험의 문화차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안신호 등, 1993, 1994; 이만영 등, 1990; Markus et al., 1991a, b). 같은 내용이라도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 또한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정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부분 외국의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척도들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알아 본 연구는 부족하다.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기보고형 척도 중의 하나는 정적 및 부적정서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et al., 1988)이다. 연구1에서는 PANA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고, 척도의 정서단어가 평소의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정서단어로서 적절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각 정서단어들이 나타내는 쾌-불

쾌의 정도 및 각성강도를 평가하여 정서척도로서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45명(남 52명; 35.9%, 여 93명; 64.1%)과, 직장에 근무하는 일반인 42명(남 17명; 40.5%, 여 25명; 59.5%)의 총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0.3세, 일반인은 36.5세였다. PANAS의 정서 단어의 적절성과 쾌-불쾌도의 평정은 대학생 130명(남 55명; 42.3%, 여 75명; 57.7%)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20.7세였다.

측정도구

정적 및 부적 정서경험척도(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한 대표적인 정서경험 척도 중 하나이다. Watson 등(1988)은 Zevon 등(1982)이 구성한 정서어휘집에서 내용분류와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20개 정서범주에 각 범주당 3개 단어씩 총 60개의 단어목록을 사용하였다. 이 단어목록에 대해 수집된 자료의 요인분석을 통해 비교적 순수하게 정적 정서경험(PA) 및 부적 정서경험(NA)을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단어 각각 10개씩 20개 정서단어를 선정하였고, 이를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Watson 등(1988)의 개발 당시 척도의 신뢰도(내적 합치도 .86~.90)와 타당도(Beck Depression Inventory와 PA상관 -.35, NA상관 .56; SCL-90우울증상차원과 PA상관 -.19, NA상관 .74)가 양호하였다. 또한 과거 몇 주, 지난 일주일동

안, 혹은 오늘 등의 시간구조를 달리해 정서경험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정적 및 부적 정서척도간 상관은 -.12에서 -.23의 범위이었다. 국내에서는 이유정(1994)이 번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고, 일상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절차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정서성에 관한 연구라고 간단히 설명한 후 성실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줄이기 위해서 익명으로 하였고 연령과 성별만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PANAS의 원척도와 한국판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비교하기 위해 평소에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상(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요인구조에서 나타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른 대학생집단에게 PANAS 척도의 각 단어의 정서단어로서 적절성, 쾌-불쾌도 및 각성정도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평정은 5점 척도상에 즉, 적절성은 1(매우 적절치 않다)~ 5(매우 적절하다), 쾌-불쾌도는 1(매우 불쾌하다)~ 5(매우 유쾌하다), 각성강도는 1(매우 약하다)~ 5(매우 강하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자료분석

예비분석에서 학생집단과 일반집단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함께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PANAS의 평균과

요인구조, 신뢰도 및 상호상관을 알아보았고, 이어 PANAS의 정서단어로서 적절성, 쾌-불쾌도 및 각성정도를 분석하였다.

결 과

PANAS의 평균과 신뢰도

PANAS 원척도와 한국판의 평균, 신뢰도 및 상관을 비교해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한국판과 원척도의 연구대상 모두 부정적 정서보다는 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판에서는 정적 정서의 경우 원척도의 평균에 비해 낮고, 부정적 정서의 경우는 원척도의 평균보다 높다. 신뢰도는 한국판의 경우 원척도에 비해 내적 합치도가 다소 낮지만 정적, 부정적 정서 모두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다. 정적-부정적 정서간 상관은 -.21로 두 척도가 변량의 약 4.5%를 공유하고 있는 편으로, 두 차원은 비교적 독립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요인구조

PANAS의 원척도의 개발 당시 사용하였던 방법과 같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직각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 Measure; Kaiser, 1974)은 .80, Bartlett의 구형성검증결과($p < .001$)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가 표 2이다. 요인 1(정적 정서)은 전체 변량의 20.7%

표 2. PANAS의 요인구조

문항	요인 1	요인 2
강한	.748	
열정적인	.739	
활기찬	.729	
원기왕성한	.725	
자랑스러운	.680	
흥미로운	.564	
단호한	.467	
주의 깊은	.381	
민활한	.327	
겉에 질린		.694
두려운		.685
조바심나는		.648
혼란스러운		.608
죄책감드는		.539
부끄러운		.514
과민한		.497
적대적인		.494
신경질적인		.442
흥분된	.317	.388
피로한		.252

주. 요인부하량은 .20이상만 제시하였음
 요인1: 정적 정서, 요인2: 부정적 정서

표 1. PANAS의 평균과 신뢰도 상호상관

	정적 정서(PA)		부정적 정서(NA)		PA-NA 상호상관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한국	30.8(5.6)	.83	24.5(5.8)	.80	-.21**
원척도	35.0(6.4)	.88	8.1(5.9)	.87	-.17**

** $P < .01$

를 설명하고, 요인 2(부적 정서)는 전체변량의 19.3%을 설명하였다

요인 2에 속하는 문항(피로한)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30을 넘어 전통적인 기준(Nunnally, 1978)을 넘어섰다. 요인 2의 문항(흥분된)은 요인1에도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는데, 이는 원척도에서는 정적 정서단어로 분류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 및 정적 정서에 비슷한 정서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AS의 정서단어로서 적절성, 쾌-불쾌도 및 각성정도의 평가

일상생활에서 정서의 경험시 PANAS 정서단어들의 정서단어로서 적절성, 쾌-불쾌도 및 각성정도의 평가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 평가치가 3미만인 단어는 ‘단호한’, ‘피로한’, ‘원기왕성한’, ‘강한’, ‘민활한’ 등 5개 단어이다 이들은 대체로 의지나 신체상태 등의 각성 혹은 활성화차원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쾌-불쾌도의 평가에서 정적 단어 중 ‘흥분된’ 단어는 그 평균치가 3.07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일관되게 쾌-불쾌도에 비슷한 정서가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정적 단어 중 ‘단호한’ 단어는 오히려 불쾌한 단어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의 깊은’, ‘민활한’, ‘부끄러운’ 단어 등도 쾌-불쾌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흥분된’, ‘단호한’이라는 단어가 외국과는 달리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적인 동시에 부적인 속성을 지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단어의 정서경험시 각성강도를 평가한 결과, ‘부끄러운’(2.80)을 제외한 모든 단어의 각성정도가 중간점을 넘어선다.

표 3. PANAS단어의 적절성, 쾌-불쾌도 및 각성정도의 평균치

단 어	적절성	쾌-불쾌도	각성
흥미로운	3.97	3.80	3.40
피로한	2.97	2.50	3.03
열정적인	3.80	3.70	4.17
조바심나는	3.33	2.67	3.14
죄책감드는	3.57	2.07	3.26
흥분된	4.00	3.07	4.07
적대적인	3.30	2.01	3.53
단호한	2.83	2.83	3.57
주의 깊은	3.30	3.27	3.67
겉에 질린	3.57	2.04	3.60
원기왕성한	2.77	3.70	3.73
과민한	3.23	2.16	3.70
신경질적인	3.67	1.73	3.84
강한	2.57	3.33	3.73
혼란스러운	3.27	2.36	3.33
활기찬	3.40	4.23	3.64
민활한	2.60	3.10	3.10
부끄러운	3.60	2.87	2.80
자랑스러운	3.84	4.23	3.17
두려운	4.00	2.03	3.80

주. 중간점: 3.0

논 의

외국에서 개발된 정서경험척도(PANAS)의 심리 측정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정적 정서의 평균이 원척도의 평균에 비해 낮고, 부적 정서의 평균은 원척도의 평균보다 높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원 척도의 대상자들에 비해 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단호한’이라는 단어가 원래 정적 정서에 속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 단어로 분

류되어 부분적으로 영향 받았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 인지구조와 체험구조가 모두 부정적정서에 과도하게 민감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안신호 등, 1993, 1994)는 점과, 개인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정서는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관점(Kitayama & Markus, 1994)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드러난 차이가 부정 정서의 체험구조가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는지, 혹은 빈번된 척도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Russell(1980, 1991)은 다차원척도 방법으로 정서분류체계가 활성화(activation)차원과 쾌(pleasantness)차원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혔는데, 일본학생들에게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영어권에서 익숙한 정서단어와 일본인에게 고유한 정서단어를 반씩 섞어서 제시해주고 단어간 유사성을 평정했을 때 두 차원 이외에 연대·비연대의 제 3차원이 나타나, 이를 정서경험의 문화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Markus et al., 1991a, b, 1994). 한편 안신호(2002, personal communication)는 연대·비연대 차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적 및 부정 정서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할 필연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그들 연구결과의 반복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Russell(1980, 1985) 연구의 반복 필요성 또한 시사해 준다.

둘째, 정서경험척도의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 평가에서 “단호한, 피로한, 원기왕성한, 강한, 민활한” 등의 단어는 적절성 평정의 중간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이들 단어가 대체로 신체상태나 의지를 반영하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아울러 ‘흥분된(excited)’의 단어는 원척도에서 정적 정서에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적·부정 정서에 비슷한 정서가 보인다. ‘단호한(determined)’은 원래 정적 정서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인 불쾌 단어군에 속하였다. 이는 ‘흥분된’, ‘단호한’이라는 단어가 외국과는 달리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어 보인다. 즉 ‘흥분된’의 단어에는 정적인 의미에서 쾌 속성을 지닐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같은 불쾌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단호한’의 단어에도 의사결정시 분명함이라는 속성과 동시에 정(情)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냉혹함이라는 의미도 내재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기보고를 통해 정서차원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차원, 쾌·불쾌와 각성차원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Watson et al., 1985; Weiss & Cropanzano, 1996). 한편 Weiss 등(1996)에 의하면,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의 구분은 측정절차에 따른 인위적인 구분이고, 생리적 현상과 그림평정 같은 비언어적 접근법을 통한 정서표현연구의 결과가 2차원의 정서구조와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해,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보다는 쾌·불쾌 및 각성차원으로 정서를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인 우위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방식의 정서단어들은 서로 배타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사성에 따라 원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고(Russell, 1980; Watson et al., 1985), 때로는 연구자에 따라 한 분류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 왔다. 따라서 두 분류방식의 상대적인 우위성보다는 연구목적과 상황에 맞는 분류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한편, 정적 및 부정 정서차원과 쾌·불쾌 및 각성차원의 두 분류방식의 상대적 우위성을 차치하고라도, 간편하고 신뢰롭고 타당하게 정서경험을 측정한다고 보고된 PANAS의 적용에는 분명한 계점이 따른다.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에서 몇 개의 단어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단어의 쾌-불쾌도의 평정에서도 다른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척도로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에 적용하고자 할 때 단어의 번안이나 선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PANAS의 한계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연구 2. 정서경험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개발 이래 여러 연구에서 PANAS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으나(Kvval et al., 2000; Watson et al., 1988),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데 몇 가지 한계점이 앞서 논의되었다. 문화와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 또한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정서단어나 정서의 구성개념에 비추어 정서를 측정할 때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한 정서단어로 정서경험을 평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국내에서도 정서관련연구(강혜자 등, 1994, 2000; 안신호 등, 1993, 1994; 이만영 등, 1990; 홍창희 등, 2000)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말 용어로서 간편하고 신뢰롭게 정서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정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임상현장에서 정서경험의 평가가 요구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정서경험척도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정서경험척도의 제작은 지금까지 정서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정적 및 부적 정서차원을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제작과정은 PANAS(Watson et al., 1988; Zevon et al., 1982)의 제작과정과 유사하나,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Watson 등

은 큰 정서단어 표집을 내용분류(content sorting)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20개 정서범주를 도출한 후, 범주당 3단어씩 60개의 단어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비교적 순수한(한 요인에는 높고, 다른 요인에는 0에 가까운 요인부하를 보이는 단어) 정적 및 부적 단어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 정서단어로서 적절성과 경험빈도에 근거해 예비정서단어를 추출한 후, 이들 단어의 쾌-불쾌의 정도를 평정하여 정적 및 부적 정서단어목록을 일차적으로 제작하였다. 이 단어목록을 요인분석하여 비교적 순수한 정적 및 부적 정서단어를 선정하고 척도를 구성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척도 제작의 경우, 대학생 230명(남 89명; 38.7%, 여 141명; 61.3%)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의 평균나이는 21.0세(2.38), 여학생은 19.6세(1.50)이었다. 척도의 타당화는 대학생 258명(남 92명; 35.5%, 여 166명; 64.5%)과 일반인 105명(남 49명; 46.7%, 여 56명; 53.3%)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대학생의 평균나이는 23.6세(3.54), 여학생은 20.4세(2.09)이었고, 일반인의 경우 남자는 40.1세(7.75), 여자는 37.4세(5.66)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의 경우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인의 경우 63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절차

척도제작은 다음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1) 강혜자, 한덕웅(2000)의 우리말의 정서적절성과 정서경험빈도의 평가(7점 평정)에서 각각 5.0, 4.0점 이상으로 평정된 정서단어 143 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두 개 단어(겁나는, 편안한)를 무작위 선정하여 반응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제시함으로써 최종 145개의 예비단어목록을 작성하였다.

2) 정적 및 부적 정서차원의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생 264명에게 예비단어 목록의 각 단어의 쾌-불쾌의 정도를 7점척도(1: 매우 불쾌 ~ 7: 매우 유쾌)로 평정하게 하였다. 반응의 일관성을 알아보는 지수(반복 2문항)에서 전후 2이상의 차이가 나는 3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개의 중복 단어간 상관은 $r = .91(p < .001, N = 230)$ 로 각 참여자들의 반응이 신뢰로운 편이었다.

3) 쾌-불쾌의 평정결과, 쾌-불쾌에 속하지 않는 단어(4.0 ± 0.5)를 제외하고 정적 정서단어는 4.50 이상에, 부적 정서단어는 3.50이하에 평정된 단어 각각 30개, 33개의 총 63개 단어를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63개 단어목록의 주축분해(사각회전) 결과, Scree 검사에서 고유치 하락 정도를 고려할 때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한 후 정적 및 부적 정서차원의 요인부하량이 높은(해당요인에 최소 .40, 다른 요인에 .20이하의 부하량) 단어를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적 및 부적 정서단어 각각 11개를 선정하여 총 22개 문항의 정서경험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타당화는 제작된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불안, 우울, 적대감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질문지는 집단 혹은 개인별로 실시되었다.

연구도구

정서경험척도

정적 및 부적 정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로, 평소 자신이 느끼는 정서경험의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적 정서, 부적 정서경험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0, .76이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

심리치료효과의 측정과 심리진단검사로 사용하기 위해 Derogatis 등(1971)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다차원증상목록검사이다. 9개의 증상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최근 경험한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없다 ~ 5: 아주 심하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호택 등(1978)이 표준화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불안, 우울 및 적대감 증상차원의 2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증상차원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 .89, .68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증상차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건강질문지

Goldberg와 Hiller (1979)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60문항의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oldberg, 1972)에서 12문항을 추출해 만든 척도이다. 이 중 5문항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증상을 측정하고 7문항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며 자아기능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승희와 손정락(2000)이 타당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내적 합치도 = .89). 각 문항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고 문항 5는 역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 과

제작된 정서경험척도의 요인구조

새롭게 제작된 22문항의 정서경험척도의 요인 분석(주축분해, 사각회전) 결과, 정적 및 부적 정

표 4. 정서경험척도의 요인구조

	요인 1(NA)	요인 2(PA)
분노한	.626	
부아가나는	.601	
두려운	.556	
신경질나는	.525	
속상한	.516	
겁나는	.506	
기가막히는	.490	
소외감드는	.471	
상실감느끼는	.466	
짜증나는	.461	
억울한	.425	
즐거운		.648
행복한		.621
편안한		.597
희망적인		.550
좋아하는		.513
만족스러운		.505
자랑스러운		.586
쾌감을 느끼는		.453
마음끄러는		.439
홀가분한		.418
후련한		.410
알파계수	.76	.80
상관 ^a PA	-.415	

** p<.01, N=230

주. a. 페-블래도평정의 상관계수임

NA: 부적 정서경험, PA: 정적 정서경험

서경험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 상관 및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제시한 것이 표 4이다.

정서경험척도의 타당화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다른 집단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경험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대학생의 경우 정적 정서경험, 부적 정서경험 각각 .88, .90이었다. 일반인의 경우는 각각 .89, .89이었다.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대학생의 경우 정적 정서경험, 부적 정서경험 각각 .83, .85이었고, 일반인의 경우는 각각 .89, .84 이었다.

정서경험척도의 타당도

정서경험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주축분해, 사각회전)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 Measure; Kaiser, 1974)은 .88, Bartlett의 구형성검증 결과 p<.001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제시한 것이 표 5이다. 표 5에 의하면, 정서경험척도의 요인구조는 대학생 및 일반 집단 모두 유사하게 정적 및 부적 정서경험의 두 요인구조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PA-NA의 상관(표 6)은 대학생집단과 일반집단의 경우 각각 .10, .13으로 정적 정서경험과 부적 정서경험은 비교적 독립된 차원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전 연구결과나 이론에 바탕을 둔 여러 가설적 모형 중 어떤 요인구조 모형이 실제 자료들과 잘 부합되는 지를 검증하

표 5. 정서경험척도의 요인구조 계수행렬(교차타당화)

	요인 1(NA)		요인 2(PA)	
	대학생	일반	대학생	일반
억울한	.755	.589	.137	.039
신경질나는	.732	.594	-.039	.140
기가막히는	.722	.739	.123	.135
짜증나는	.709	.656	-.016	-.001
부아가나는	.709	.725	.018	.121
속상한	.686	.692	.091	.032
분노한	.679	.663	.085	.102
소외감드는	.674	.534	-.035	-.050
상실감느끼는	.654	.658	-.059	-.003
두려운	.518	.545	.170	.240
겁나는	.518	.699	.092	.135
만족스러운	.088	-.008	.794	.784
쾌감을 느끼는	.159	.184	.689	.683
행복한	-.093	.093	.666	.771
희망적인	-.066	-.123	.632	.512
자랑스러운	.039	.106	.627	.602
홀가분한	.130	.207	.618	.628
즐거워	-.102	.072	.614	.715
후련한	.183	.106	.612	.627
좋아하는	.033	.084	.609	.774
편안한	-.050	-.069	.586	.633
마음끌리는	.157	.135	.524	.545
고유가	5.21	5.13	4.54	4.94
설명변량(%)	24.34	26.16	19.63	18.58

N=258(대학생), N=105(일반)

는데 사용된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특별한 경우로서 여러 측정변인을 이용하여 추출된 공통

표 7.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NNFI	CFI	RMSEA(90%CI)
단일 요인모형	939.37	209	.884	.904	.158(.152-.164)
독립 2요인모형	813.31	209	.964	.970	.060(.053-.066)

표 6. 요인상관행렬

요인	요인 1(부적 정서)		요인 2(정적 정서)	
	대학생	일반	대학생	일반
요인 1	1.000	1.000	.097	.131
요인 2	.097	.131	1.000	1.000

변량을 잠재변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측정오차가 통제된다는 이점과 더불어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쟁 모형들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일요인과 이요인모형을 설정하였다. 일요인모형은 정서경험척도가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독립된 이요인모형은 정서경험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2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Watson 등(1988)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값 외에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Nonnormed fit index(N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적합도지수로 사용하였다. NNFI,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합

표 8. 정서경험척도의 타당도 평가에 사용된 검사간 상관행렬

척도	불안	우울	적대감	일반건강
대학생(N=258)				
정적 정서경험	-.10	-.30**	-.10	.56**
부적 정서경험	.48**	.54**	.49**	-.25**
일반(N=105)				
정적 정서경험	-.06	-.17	-.19	.46**
부적 정서경험	.48**	.42**	.36**	-.30**

** p<.01

도가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표 7), 단일모형보다는 독립된 이요인모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불안 및 우울과의 상관

정서경험척도와 불안, 우울, 적대감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 표 8이다. 대학생의 경우, 부적 정서경험은 불안, 우울 및 적대감의 증상차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일반건강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일반건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울증상 차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일반인의 경우 부적 정서경험은 대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불안, 우울 및 적대감 증상차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일반건강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정적 정서경험의 경우는 일반건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평소의 정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측정도구를 평가한 결과, 정서경험척도(PANAS)로서 외국 의 척도를 국내에 적용시 정서단어의 선택이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새로운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대학생집단에서 우리말의 정서단어로서 적절성과 정서경험의 빈도를 평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서단어 목록을 추출하였고, 이 목록단어들의 왜-불왜도를 평정하게 하여 예비 정서경험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다른 대학생집단에 실시한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정적·부적 정서단어의 22개 문항의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였다.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및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대학생 및 일반집단 모두에서 두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성 및 시간적 안정성 면에서 신뢰도가 높았다. 정서경험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와, 평소 경험하는 불안, 우울,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검토해 보았다. 정서경험척도의 내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타당화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대학생 및 일반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정적 및 부적 정서의 2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이요인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평소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부적 정서경험은 불안, 우울 및 적대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삶의 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정적 정서경험과 부적 정서경험간 상호 상관은 대학생집단과 일반집단에서 각각 .10, .13의 비교적 독립된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경험구조의 차원을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각기 독립된 두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Watson 등(Clark et al., 1988; Watson, 1988; Watson et al., 1985)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정서경험의 구조는 양극성(bipolar)보다는 단극성(unipolar)임을 시사하는데,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독립적이라는 주장(Boris, 1998; Bradburn, 1969; Diener & Emmons, 1985)과는 일치하고, 강한 양극성을 보인다는 주장(Feldman, Barrett & Russell, 1998; Green, Goldman, & Salovey, 1993)과는 다르다. Feldman 등(1998)과의 차이는 그들이 쾌 불쾌 각성/비각성 두 차원의 조합을 다루었는데 반해, 본 척도에서는 각성 혹은 활성화차원이 아닌 쾌-불쾌의 차원을 포함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정서경험척도의 제작시 Watson 등(1988)의 정서경험척도에 포함된 strong, determined, active 등의 활성화차원을 반영하는 단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신호 등(1994)의 주장처럼 진정한 정서의 구조는 정서경험시 자기보고내용에 담긴 구조일 것이며, 따라서 (1) 양극적이 아니라 단극적이며 (2) 활성화수준이라는 차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함께, 자신의 기분에 대한 판단시에는 활성화차원보다는 정서가(valence)차원이 적절하다는 주장(Feldman, 1995)에서도 볼 때, 본 정서경험척도는 정서경험시 정서구조를 적절히 측정한다고 하겠다.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문화권에서는 정적 및 부적 정서경험을 서로 대립되는 방식(bipolar ways)으로 경험하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상호의존적 문화권에서는 변증법적 방식(dialectic ways)으로 경험한다는 주장(Baggiozzi, Young, & Yi, 1999) 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하나의 사상이나 사물이 일면적(一面的)인 특성을 지닌다기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속성을 함께 지닌다는 관점으로, 기쁨 같은 정적정서와 슬픔 같은 부적정서를 동시에 지닌다는 견해이다. PANAS의 경우 정적정서와 부적정서간 상관은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본 척도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간 상관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가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본디 하나라는 관점에서도 엇볼 수 있고, 일상의 미운 정의 관점에도 스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척도의 개개 정서단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억울한, 속상한, 후련한 등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경험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리어 마음이 답답하다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여 속상하고 분한 마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 등이 반영되고 있어 보인다. 이러한 부적정서가 일이 풀리어서 마음이 시원하다든가 가슴에 더부룩하던 것이 내려 시원하다는 경험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결과들은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정서단어로 정서경험척도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서관련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고, 입증된 타당도로 이론적 임상적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점으로는 측정된 방법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서경험은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였다. 물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도구들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닐 수 있다. 우선 가장 크게 응답자의 반응태도에 의해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추후 피부전도반응이나 심박율 같은 생리적 측정치를 함께 사용해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다양한 시간 간격(예, 과거, 현재, 2주, 6

개월, 1년 등)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혜자, 한덕용 (1994). 정서의 공발생 경험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 207-218.
- 강혜자, 한덕용 (2000). 한국어 정서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 63-100.
- 강혜자, 한덕용, 전경구 (2000). 정서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치료학회, 7(1), 51-67.
- 국승희, 손정락 (2000).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GHQ/QL-12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587-602.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107-12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정서단어의 유사성 구조와 정서 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50-175.
- 원호택 (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한국판 표집화 연구 II. 한양대학교 논문집, 12, 457-474.
- 이만영, 이홍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서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118-138.
- 이유정 (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 (1991). 자기불일치 인지기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공존현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 이주일 (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서울대학교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홍창희 (2003). 정서표현성 모델의 검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 홍창희, 오수성 (2001). 정서경험척도 및 정서표현성척도의 고찰. 한국심리학회 2001년도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732-742.
- Arbuckle, J. L. (1997). *Amos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 Averill, J. R. (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MS. No. 1103).
- Bagozzi, R. P., Nancy Wong, & Youjae Yi.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Cognition and Emotion*, 13, 641-672.
- Boris, C. (1998).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depends on the affect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5, 1101-1109.
- Bradburn, N.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eckler, S. J. (1990).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107, 260-273.
- Bush, L. E. II (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Clark, L. A., & Watson, D. (1988). Mood and the mundane: Relations between daily life events

- and self-reporte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96-308.
- Derogatis, L. R., Lipman, R. S., & Covi, L. (1971). Neurotic symptom dimensions as perceived by psychiatrists and patients of various social class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454-464.
- Diener, E., & Emmons, R. A. (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Feldman, L. A., Barrett, J., & Russell, J. A. (1998). Independence and bipolarity in the structure of current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967-984.
- Goldberg, D. P. (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Maudsley Monograph No. 2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D. P., & Hiller, V. E. (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 139-145.
- Green, D. P., Goldman, S. L., & Salovey, P. (1993). Measurement error masks bipolarity in affec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29-1041.
- Gross, J. J., John, O. P., & Richards, J. M. (2000). The dissociation of emotion expression from emotion experience. A personality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12-726.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itayama, S., & Markus, H. R. (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vval, S.A., & Patodia, S. (2000). Relation amo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matic symptoms in medically ill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report*, 87, 227-233.
- Larsen, R. J., & Diener, E. (1992). Promise and problems with the circumplex model of emoti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5-29.
- Lazarus, R. S. (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24-12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New York: Springer-Verlag.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pp.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elvin, G. A., & Molloy, G. N. (2000).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mong Australian youth. *Psychological report*, 86, 1209-121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Parkinson, B., Totterdell, P., Briner, R. B., & Reynolds, S. (1996). *Changing moods: The psychology of mood and mood regulation*. London: Longman.

- Russell, J. A. (1980). A co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Russell, J. A. (1991). Culture and categorization of emo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 426-450.
- Russell, J. A., & Bullock, M. (1985). Multidimensional scaling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Similarity from preschoolers to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290-1298.
- Russell, J. A., Lewicka, M., & Nii, T. (1989). A cross-cultural study of a co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848-856.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s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Tomkins, S. S. (1981). The quest for primary motives: Biography and autobiography of an ide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06-329.
- Watson, D. (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i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ir relation to the health complaints, perceived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20-103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s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Zajonc, R. B. (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 117-123.
- Zevon, M. A., Tellegen, A. (1982). The structure of mood change: An ideographic/nomothetic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11-122.

원고접수일 : 2004. 2. 24
게재결정일 : 2004. 7. 1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Emotional Experience Scale

Chang-Hee Hong

NaJu National Hospital

This study was to construct the Emotional Experience Scale(KPANAS),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on the study of an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Emotion Terms in Korea, a pool of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and administered to 230 undergraduates, and KPANAS with 22 items was constructed using factor analyses on the data. To confirm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KPANAS was administered to 258 undergraduates and 105 normal adults. KPANAS was high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KPANAS had consistently two factors labeled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The study evaluated the fit of two competing models to data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independent two-factor model fit the data well. And KPANA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nxiety, depression and general health, hen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KPANAS had good construct validity. Also,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experie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